

200자 안내

바람 속에 나무끼는 불꽃

백송 지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성폭행을 다룬 소설. 26세의 한 젊은 가정주부가 택시운전기사에게 납치 당해 2년 가까이 이곳 저곳으로 끌려다니며 매춘을 강요당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돼 돌아오지만, 남편과 자식은 멀리 떠나고 없다. 성폭행과 매춘의 실태를 그대로 기록한 한 여인의 수기를 토대로 씌어진 이 소설은, 사회의 필요악으로 매춘을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운명이 뒤바뀐 여인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모순을 고발한다.

삼일/A5신/286면/3800원

수학 서유기

젠이찌로 지음/전국수학교사모임 옮김

일본 信州대학 수학과 교수인 저자가 어렵고 골치 아픈 수학의 세계를 좀더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고전 「서유기」를 차용해 이야기 형식으로 꾸민 책. 교과서를 떠나면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수학이란 학문의 세계를 생활 속에 숨겨진 수학적 사실을 통해 접근하고 있어 흥미로운 책. 일월서각/A5신/254면/4000원

내가 너를 느낄 때 나는 외롭지 않다

문환철 지음

을지병원 의사로 있는 저자가 병원근무를 통해 경험한 여러가지 일들을 짙막한 글속에 담아 펴낸 것. 모두 58개의 掌篇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의술은 인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질되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과 가슴 훈훈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각종 질환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느낀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고백이 실렸다.

한겨레/A5신/310면/4800원

물리법칙의 특성

리차드 파인만 지음/나성호 옮김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교육자인 저자가 코넬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모은 책.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로 2차세계대전 이후 물리학계의 혼란을 정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 받는 저자는 물리법칙의 특성을 7개의 장으로 나눠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중력의 법칙, 둘째 물리학과 수학의 관계, 셋째 대보존원리들, 넷째 물리법칙에서의 대칭, 다섯째 과거와 미래의 구분, 여섯째 확률과 불확정성, 일곱째 새로운 법칙을 찾아서 등이 그것이다.

미래사/A5신/212면/3500원

열쇠

다나자끼 준이찌로 지음/한혜숙 옮김

56세의 대학교수 남편과 45세의 보수적이고 교양있는 아내 사이의性と 애정의 문제를 일기체 형식으로 파헤친 일본작가의 소설. '개인적인 내밀의 기록'인 일기를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개하면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아내를 일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쾌락의 세계로 이끄는 남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성의 유희를 일방적인 소설의 양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엮어가고 있다.

지영사/A5신/194면/4200원

재미없는 세상 재미있는 사람들

김호운 지음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아 문단에 나온 작가가 직장생활과 현대인들의 연애편곡도를 그린 풍토모음. "나는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풍토를 쓴다"는 작가는, 치열한 경쟁의 연속인 직장생활 속에서 어쩔 수없이 보통사람들이 겪는 애환과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부부의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잘 나지도 못하고 능력도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야할 행복을 작가는 짧은 글들을 통해 제시한다.

두루/A5신/312면/4500원

이런 아버지가 아이를 망친다

가나모리 우라코 지음/최미숙 옮김

도쿄심리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소년 상담심리가로 활동해온 저자가 「이런 어머니가 자식을 망친다」에 이어 펴낸 자녀교육서. 이 책은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져가는 오늘날, 자식과 아내에게 못한 아버지와 남편으로 비춰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놓고 있으며, 아버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생활태도의 해결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삶의 지혜를 터득해 당당한 아버지가 되기를 권유한다. 동풍문화/A5신/224면/4000원

한국인권의 실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 지음

지난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번역한 책. 정부가 이미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반박하고 있는데, 1부에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비롯한 글을 실고 있으며, 2부에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등의 글이 실려있다. '국가보안법-실질적인 의미의 헌법'(3부) '고문 등의 금지와 신체의 자유'(4부) 등으로 꾸며진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출판됐다. 역사비평사/A5신/182면/3800원

새타니와 질거바리

서정범 지음

경희대 교수로 그동안 우리말의 어원에 대한 연구성과와 함께 독특한 시각의 저서를 펴낸 바 있는 저자가 30여년에 걸쳐 만난 3천여명의 무당을 인터뷰한 글을 정리, 출판한 '무녀별곡'의 세번째권. 「나비소녀의 사랑이야기」(1권) 「우리 사랑 이승에서 저승으로」(2권)에 이어 나온 이 책은, 무녀들이 어둠의 세월 속에서 겪어야 했던 환과 고통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저자가 발견한 신비한 영적세계가 펼쳐진다.

한나라/A5신/326면/4800원

제목만 빌립시다

김재일 지음

현재 TV 드라마를 쓰는 방송작가라도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이미 방송돼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방송 드라마의 제목만을 빌려 쓴 풍토를 한 데 모은 책. 삶의 곳곳에 틀어박혀 언뜻 눈에 띄지 않는 인생의 참뜻을 50여편의 짧은 글로서 전하고 있는데, 「질투」 「사랑이 뭐길래」 「일출봉」 「두려움 없는 사랑」 등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던 드라마의 제목이 주는 친숙함과 함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일상사를 꼬집어내는 작가의 솜씨가 돋보인다.

예인/A5신/314면/4000원

북대황

매제민 지음/최홍수 옮김

중국의 원로작가가 담백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북만주 대륙의 광활한 자연의 모습과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린 소설. 본디 사람이 살지 않는 초원이란 뜻에서 이름 붙여진 '북대황'은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펼친 북만주지역을 지칭하는 곳으로, 작가는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회한을 이 한편의 소설을 통해 한껏 표현한다. 1979년 처음으로 출판된 이 책은 현재 중국의 중고교에서 교재로도 활용하고 있다.

디자인하우스/A5신/224면/4500원

폴링 엔젤

윌리엄 히조버그 지음/설영환 옮김

한 인간의 육체를 빌어 악마숭배와 광적인 성적 유희, 살인을 추구하는 사이비종교의 실상을 폭로한 추리소설. 탐정 엔젤은 어느날 실종된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이는데, 의문의 살인사건은 꼬리르 물고 계속 이어진다. 어느 순간 엔젤은 자신의 의식 속에 루시퍼라는 악마를 숭배하는 부두교의 교주가 나타나,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유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소설은 일란 파커 감독에 의해 '엔젤 하트'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보람/A5신/312면/4000원

인도차이나

크리스피앙 드 몽텔라 지음/유정림 옮김

1930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운명적인 사랑과 역사의 굴곡을 그린 작품. '내 생애 최고의 여인'의 감독으로도 유명한 레지 바르니에 의해 영화로 제작돼 국내에도 소개된 이 작품은, 식민지 인도차이나의 대지주인 엘리안느 드브리외와 그녀의 양녀이면서 인도차이나의 마지막 황녀인 까미유가 젊은 해군장교 장 밥티스트를 만나 극적인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된다.

사계절/A5신/316면/4800원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광덕 지음

이 책은 불광법회를 통해 설법을 하고 있는 광덕스님이 설법1집 「메아리 없는 글짜기」 다음으로 펴낸 두번째 설법집. 1편 '생명의 양식' 2편 '내 생명 반야마라밀' 3편 '일체는 마음이 만든다' 4편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라' 5편 '네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대화체 형식을 빌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불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서도 설법회에 참석하기 힘든 불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불광출판사/A5신/328면/4500원

우주도시 (1·2)

J.B. 블리시 지음/친승세 옮김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는 TV 외화 '스타트랙'의 원저자인 작가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SF소설. 이 작품은 21세기초부터 4004년까지의 인류사를 기술한 것으로, 서구문명의 몰락을 예고한 슈팽글러의 사관에 의거해 씌어졌다.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노력과, 불가능한 항성간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둘러싼 미래인들의 모습을 치밀한 구성으로 그렸다.

나경문화/A5신/각 268면/각 4200원

여우사이

장유진 외 지음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 하자’의 줄임말을 제목으로 한 이 책은,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미팅을 소재로한 이야기를 모은 것. 대학가에서 유행되는 미팅의 종류와 방법을 정리해, 대학가 만남의 풍속도를 읽게 하면서 더불어 젊은이들의 싱그러운 이성관과 애정표현을 엿보게 한다. 전국 대학생들의 꾸밈없고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풋풋한 생각을 접할 수 있다. ‘재미로 보는 궁합’이 권말부록.

창현/A5신/352면/4500원

반년간지

오늘의 詩 (1992년 상반기)

[기획특집] 90년대의 시적 상황을 진단한다 (김진수/서영채/유중하/윤재용/이경호/이광호/이남호/이윤택/최인자)

[오늘의 시인] 오규원 ▲시인의 초상(이창기) ▲시인론(김정란)

[시집서평] ▲김남주의 「사상의 거처」(김춘식) ▲이연주의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 외 (함성호) ▲채호기의 「지독한 사랑」(김경수) ▲최하림의 「속이 보이는 심연으로」(박덕규) [재수록 시] 강연호의 「세한도」 외 60편 현암사/A5신/310면/4500원

민족문학사연구 (1992년 상반기)

[좌담] 국문학연구와 서양문학 인식(백낙청/반성완/임형택/임규찬)

[특집] 한국리얼리즘문학의 발전과정 ▲리얼리즘과 한국장편소설(이선영) ▲한국한시에서의 현실주의 논의(안대회) ▲고전소설에서의 현실주의 논의 검토(정출현) ▲한국 리얼리즘시론의 역사적 전개와 지향(윤영천) ▲근대소설 연구에서의 리얼리즘 인식(채호석) [논문] ▲조선 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강명관) ▲이해조의 계승자, 김교제(최원식) ▲「서화」재론(이상경)

[1991년도 연구동향] 고전시가(정홍모)/고전소설(권순궁)/한문학(남은경)/현대시(유병관)/현대소설(이주형)/현대비평(최유찬) 창작과비평사/A5신/414면/5800원

오늘의 소설 (1992년 상반기)

[특집좌담] 전환기의 사회와 진보적 소설문학 (복거일/손경목/이재현/임영일)

[특집대담] 민중 속으로: 깊이, 넉넉하게(김남일/한기)

[장편서평] ▲지위저가는 존재의 지옥-하일지의 「경마장을 위하여」(신범순) ▲허무혼의 부정정신과 신생의지-박상우의 「시인 마태

오」(우찬제)

[중편소설] 문앞에서(이동하) / 鹿川에는 똥이 많다(이창동) / 당신(김인숙)

[단편소설] 가해자의 얼굴(이청준) / 내 마음의 서부(김영현) / 천하무적(김남일) / 자본가여 단결하라(이순원)

[92년 상반기 발표 소설 총목록] 현암사/A5신/384면/5500원

연간지

노동법연구 (1992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엮음

[권두논문]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김유성) ▲ILO 단결권협약과 복수노조문제(오문완)

[특집논문] ▲부당해고 구제수단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이홍재) ▲5공화국 해직자의 해고소송(박상훈) ▲해고절차에 관한 고찰(이승욱)

[일반논문] ▲노동조합전임제도에 관한 연구(최홍엽) ▲독일법상의 노동조합(이철수) ▲단체교섭권대상사항의 확정원리(최영호) ▲관리적 근로자의 부당 노동행위 주체성(강성태)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조용만)

[판례평석 및 사례연구] ▲행정관청의 단체협약변경명령권(이재명) ▲포괄산정 근로계약과 근로시간(박주현) ▲철도기관사 파업(김선수)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정재성)

[노동판례요지] 1991년 중요 노동판례 요지까지/A5신/482면/8000원

울상이 되어버린 편집장님...



발행 날짜는 다가오고...
일 진행은 지지부진!
영성한 편집에... 엉망인 교열, 교정...
재차 수정해도 자꾸만 보이는 오자...
점점 정신없어하는 사람들...
그만 우리의 편집장님은 울상이 되어버렸다.

저희 마루벌은 이런 편집장님들께 웃음을 선사해 드립니다. 체계적인 업무분담과 전문 인력들의 투철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완벽한 최첨단 시설,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업무진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배가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마루벌 가족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족감, 성취감을 저희와 함께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마루벌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

- 디자인 / 표지 · 본문 · 광고 · 카더록 등 마케팅전략에 의한 감각적 · 차별적 디자인!
- 편집 / 단행본 · 사보 · 잡지의 세밀한 편집!
- 윤문 · 교열 · 교정 / 완벽한 문장구성 · 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 3의 창조!
- 식자 · 출력 /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 매킨토시 완벽 출력서비스
- 제판 /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 · 원색 제판!
- 인쇄 /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 · 고품질 인쇄!
- 제작 /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 · 제본!
- 기획 / 원고 기획 · 마케팅 · 편집계획 · 광고 등 종합 컨설팅!

☎ 문의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서체검본집을 드립니다.
* 알림 : 참신한 경력이 있는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이력서 · 자기소개서와 함께 방문요망.

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

